

부정공(휘 通義) 추향 및 정기총회



△인동 「놀곡제」에서 부정공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창화공(휘 準) 추향제 봉행



△창화공 추향제 권병길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영주 대영고(大榮高), 전국 고교평가 ‘경북도 1위’



△영주대영고등학교 전경(왼내는 권무탁 이사장)

권무탁(權武卓 76세, 32世 김교공파, 대영교육재단 이사장, 본원 부총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주 대영고는 한 언론에서 실시한 시·도별 일반계 고등학교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도에서 1위에 올라

전국 명문高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지난해 평가에서 도내 7위에 오른데 이어 올해는 6단계나 상승하며 도내 1위를 했다.

고교평가 항목 및 배점은 학력수준(60

부정공파종회(회장 권오서)는 지난 10월 12일 안동시 와룡면 가이리 「놀곡제」에서 오후 7시 70여명이 참석하여 권세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정기총회에 들어가 권오서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어 감사보고 경과 결산보고 기타토의로 회의를 마쳤다.

이어 10월 13일 우천으로 인하여 「놀곡제」에서 오전 10시경 참제원이 참제한 가운데 부정공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권기승 ▲아헌관:권운대 ▲종헌관:권순택 ▲대축:권운운 ▲집례:권호기 (이하는 생략합니다.)

〈권혁세 기자〉

창화공종회(회장 권병선)는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 내 창화공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贊成事 昌和公(휘 準)의 묘소에서 지난 10월 26일 12시, 후손 7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권혁환씨의 인솔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집결하여 버스 1대로 출발하여 입진각 복진교 검문소에 1차 집결하고 평택 1대(관광차) 봉담(봉고차 1대) 용인, 양주, 인천 등지에서 승용차로 10시 30분에 합류하여 묘소로 이동하였다.

12시경부터 제례에 들어가 1시간여에 걸쳐 봉행하였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권병길 ▲아헌관:권혁소 ▲종헌관:권혁중 ▲축관:권혁봉 ▲집례:권장택
〈글·사진 권오복 편집위원〉

점), 교육환경(30점), 학교평판(10점)으로 평가하여 학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와 학부모님의 만족도 등이 포함된 다양한 자료에 의해 평가했다.

대영高는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력이 많이 향상됨은 물론 인성교육에서도 준별 우수학교로 여러 차례 선정되어 지역교육의 선도적 역할은 물론 전국 명문고교로서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는 과학중점학교를 통한 우수한 이공계 인재육성과 함께 지난 달에는 인문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돼 창의적 과학기술교육과 인문학의 융합을 이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지흥 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학부모들에게는 신뢰감을 높여주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고취시켜 선비정신을 계승하는 참된 인재육성이라는 학교의 교육목표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신문 2014.10.27 10면기사 인용〉



왕비 인선왕후도 북벌계획에 일조하여 궁궐 내부의 기강을 세우고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주령을 내리고 종묘제례에 쓸 제주를 제외하고는 일체 술을 빙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탄석으로 만들었던 이불호청을 적색과 청색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호청과 천을 군복감으로 만들고 솜은 겨울의 동상방지용으로 쓰기 위함이었다. 물론 군포를 거두어 충당할 수 있었으나 이는 사전에 부족할 때에 여유분을 얻으려는 준비수단이었다.

그런데 1654년 청(淸)에서 러시아를 치기 위하여 조선에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조총을 잘 쏘는 정예보병 100명을 선발하여 청의 양방장 장군 휘하에 편입시켜 전투에 임하도록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당시 시베리아로 진출하면서 흑룡강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효종은 조정의 의견을 거쳐 군량미를 확보하고 병급을 파견장수로 임명하고 그해 4월에 청군과 연합하여 러시아군과 전투를 치렀다. 그 결과 조선군에서는 사상자 없이 돌아왔다. 그러나 제2차로 1658년 청(淸)에서 러시아를 치기 위하여 조총수 200명의 보병과 군량미 5개월분을 조선에 재차 요구하였다. 그래서 효종은 신유 장군으로 하여금 출정케 하였다. 이때에도 신유 장군의 전투작전이 성공하여 러시아군을 물리쳤다.

〈2면에 계속〉

霜岳權先生 事績碑 및 世居碑 除幕式

상암권선생 사적비 및 세거비 제막식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만리 서동숲에서 2014년 11月7日(금)(음, 윤9월15일) 의령군수 각 문중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하여 霜岳權先生 事績碑 및 世居碑 除幕式을 봉행하였다.

9시부터 권익상 초헌과 집례 손태열씨, 독축 주종수씨에 의해 고유제를 시작하여 국민 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등부석제 권병기 사장, 권보상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어서 비제막과 비문(碑文)을 읽었는데 비문은 경상대 許穆朱교수가 찬(撰)하였다. 이어 權翼相추진위원장의 인사와 허훈도 문화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참석자는 오영호 의령군수, 오용근 의회 의장과 문봉도 군의원, 하흔도 의령문화원장과 회원들, 김홍섭 의령향교 전교와 유림 인사들, 의령의 문화예술단체회원들, 의령군내 13개 읍면별 서우회회원들, 의령동부지역 6문중 대표 및 각 문중대표, (진주강씨,담양전씨, 전주이씨, 벽진이씨, 전의이씨, 의령남씨, 초계정씨, 달성서씨, 밀성박씨, 함안조씨, 창녕성씨, 순흥안씨, 김해허씨, 김해김씨, 안동장씨, 안동김씨, 경주김씨, 경주최씨, 해주오씨)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公事蹟碑銘 井序

선생의諱는 滄,字는 道甫요, 霜岳은 그號이다. 都僉議右議政 體泉府院君 文坦公 一齊 諱漢功大匡 花原君 諱仲達이 高麗後期에 歷史에 赫赫하다.

그 五代孫 生員 典獄署奉事 諱金錫이 丹城에 奠居하였으니, 선생의 高祖이다. 先生은 1578(宣祖11)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容貌가 端重하고 舉止가 非凡하였다. 심오세 때 입진왜란을 당하였는데 난리속에서도 늘 수불석권하며 학문에 정진했다. 자라사 寒岡 鄭述先生의 훈도를 입어 滄溪와 南冥 兩先生의 學脈에 연접되었다.

1613년 生員에 이어 文科에 급제하였다. 默翁, 忠興 東溪 諱壽 세 명이 文科에 及第



△상암공 세거비와 사적비

한·중 만화달인 전시회, 성황리에 열려



△한중 만화달인전 개막식 데이프 커팅과 신문수고문의 심사

한·중 만화달인 전시회가 지난 10월 24-26(3일간) 중국 「청도 성문아울렛백화점」 전시장에서 한국(사)한국원로만화가협회(회장 권영섭, 영주 34世, 북아공파, 본

원 종로 자문위원)와 중국 신생활그룹이 공동 주최하고 후원으로 기업은행, 민주평통,

성문그룹 外 8개 회사(만화 출판 작품 150여점)이 전시되었다.

이날 김기홍 조직위원장이 개막선언을 하고 이석재 민주평화자문회의 중국 청도 협의회장의 축사와 권영섭 대회장 외 10여명이 개막테이프를 컷팅했으며 일반 관람자 초·중·고 학생(3일간 500여명)이 관람해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이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호응이 좋아 2주간 전시가 더 연장되었다. 한편 이 행사는 3일간의 공식행사 기간

人間の晩秋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논의는 예로부터 있어왔다. 현대 의학자들은 125세까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통계청에서도 현재 65세를 넘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세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인생 칠십은 옛말이고 인생 백세 시대가 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요즘은 ‘인생 백년 사계절 설(說)’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25세까지가 ‘봄’／50세까지가 ‘여름’／75세까지가 ‘가을’／100세까지가 ‘겨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70세 노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만추(晩秋)쯤 되는 것이요, 80세 노인은 이제 막 초겨울에 접어든 셈이 되는 것이다.

동양에서와 같은 回甲개념이 없는 서양에서는 대체로 노인의 기준을 75세로 보는 것 같다. 그들은 65세에서 75세까지를 ‘young old’ 또는 active retirement(활동적 은퇴기)’라고 부른다. 비록 은퇴는 했지

하여 家聲을 크게 선양하였다. 成均館 博士로 仕官을 시작하여 1618년에는 成均館 典籍으로 승진했지만, 光海朝의 亂政으로 취임하지 않고 草野에서 默翁, 東溪와 함께 學問에 沈潛하였다.

1623년 仁祖反正 이후, 刑曹佐郎을 거쳐 結城縣監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頌德碑를 세웠다.

任亂後 黃海道 都事로 그 이듬해 遂安郡守에 임명되었다. 이 때 兵曹判書 李廷龜가 선생이 외직으로 나가는 것을 아쉬워했으나, 선생은 “나라 일을 회피하려 해서 되겠소?” 하고 바로 부임했다. 떠나온 뒤 群民들이 遺愛碑를 세웠다. 1632년 朔 三陟府使로 나갔다.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고, 잡다한 세금은 다 없애고, 폐단을 개혁하고, 학교를 일으켜 교육을 베풀니, 백성들이 칭송하여 마지않았다. 1636년 光州牧使로 나갔다. 이 해 겨울 淸나라 軍隊가 쳐들어왔는데 선생은 군대를 이끌고 南嶺山城으로 가 仁祖를 구원하려고 했다. 桐溪, 月沙, 寒沙 姜大遂 등과 道義之交를 맺었다.

평소 著述을 즐기지 않았고, 또 草稿를 모아두지 않아 詩文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남아 있는 것을 默翁의 詩文과 합하여 聯芳輯錄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선생이 逝世한지 어언 370년에 가까워오고 있다. 산소에는 知己인 龍岡 趙綱先生이 지은 墓碣銘이 새겨져 있다.

후손 載阿, 惠相이 와서 請文했는데, 그 崇祖의 精誠에 깊이 감동하여 크게 사양하지 않고 그 事蹟을 서술하고 끝에 銘을 붙인다.

辛卯(2011)年 嘉節節에, 文學博士 慶尙大學校 教授 許穆朱 謹撰

題字 十二世孫 泰鉉 謹書



△사적비 고유제(부림면 한26길1)



△신문수심사위원장, 이석재 중국청도협의회장, 김기홍 조직위원장, 권영섭 만화가협회장

에 3차례의 「만화교실」을 열어 청소년들에게 「만화특강」을(대회장 권영섭)하고 직접 청소년들이 작품을 제작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심사를 거쳐 「고바우 만화상」을 수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격려했었고 중국 교포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10월 26일 시상식에서 권영섭 대회장은 ▲초등부: 금, 은, 동, 장려상 10명▲중등부：금, 은, 동, 장려상 10명 ▲고등부: 금, 은, 동, 장려상 10명, 그 외 모두 30명에게 「고바우 만화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권영섭 한국원로 만화가 협회장〉

감격케 했다

이들보다 나이는 적지만 금년도 70세인 세계 제1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는 최근 “이제 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쉬면 늙는다 (If I rest, I rust)”라며 바쁜 마음 (busy mind)이아팔로 건강한 마음 (healthy mind)이라며 젊음을 과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음이 보다 더 젊은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말한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노령에도 뇌세포는 증식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확실히 ‘늙음’은 나이보다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다. 물론 생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감사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젊음과 長壽(장수)의 秘訣(비결)인 것 같다.